

韓日經濟關係의 未來像

—懸案問題解決과 共同利益追求方向 및
制度的摸索을 中心으로—

〈2〉

沈 成 根

〈特許廳 審査4局 雜貨課〉

—承 前—

⑤ 製鋼, 機械等 日本 諸般工業發展

日本鐵鋼工業이 發展하던 搖籃期에 1907년 藤山定七 등이 黃州鐵山을 最初로 開發이 本格化된 鐵鑛은 1919年 42만톤을 生産 80%를 日本에 輸出하는 등 日本의 製鐵, 製鋼工業에 原料를 提供해왔으니 北海道室蘭製鐵은 价川·利原鐵山에서, 三菱製鐵은 載寧·黃州·南陽鐵山에서, 八幡製鐵은 殷栗, 安島鐵山에서 直接 採掘해 갔고, 日帝末 1944년엔 333만톤을 生産 日人製鐵業의 需要를 供給했는데 비록 輸出形態라 하나 鐵鑛業者가 100% 日人이었고 生産量이나 賦存量에서 韓國이 日本을 능가하였다. 그 밖에도 世界 10位圈을 維持한 重石鑛을 特殊鋼등 金屬工業에, 對日輸出이 有一한 目的인 黑鉛은 製鍊工業, 電池工業에, 品質에 있어 世界的인 高領土는 陶磁器工業에, 硅砂는 硝子工業에, 雲母는 電氣工業에, 日本圈內 有一한 明礬石은 알미늄工業에, 그 외에도 世界 5位の 水鉛鑛, 日本需要의 거의 대부분을 供給한 螢石, 世界 7位の 重晶石, 亞鉛, 石棉, 마그네사이트, 1928년 82만톤을 생산 27만톤을 輸出한 석탄에 이르기까지 原料를 供給했고 金本位貨幣制度下에 不法으로 또는 採掘權을 얻어 採掘해간 金이 막대하고 1886년부터 第一銀行을 통한 買入金이 年間 2.4톤~3.6톤이었고 輸入해간 金이 19~34톤 이상이었 고 日帝下에도 1939년 26톤 등 韓國의 많은 產金量은 外貨收入, 貨幣發行 準備金,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 供給, 金屬工業의 原料로 큰 몫을 하여 韓國鑛業이 工業原料를 提供, 日本의 製鐵, 製鋼, 機械等 日本의 諸般工業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日人會社들의 採掘費

用中 賃金이 극히 低廉하여 發展途上의 日本工業에 提供한 값싼 原料는 韓國의 몫이 들어 있었고, 1939년 韓國內 工場 生産額은 日本 本土의 3.8%, 이것은 韓國內 消費自給 72.1%로 工業原料가 韓國工業에 대한 기여는 약했으며 韓國工業은 落後했었고, 그 후 6.25동란에는 日本工業을 비약시킨 黃金市場이었고, 現在는 韓國의 後發工業化로 日本重工業의 需要를 일으키고 있다.

⑥ 貿易均衡의 摸索

一國의 經濟가 一方的으로 다른 國家의 經濟의 利益 追求의 對像만으로 存在할 수 없다. 그런데 74년부터 79년 사이 韓國總貿易赤字의 88%인 121億弗이 對日 赤字였다. 石油波動으로 가장 어려웠던 이 期間中 韓日 間 貿易이 均衡한 이뤄졌다면 6년간 總赤字는 6億5千萬弗에 그치고 76~78年間은 黑字를 記錄하고 現經濟事情도 밝은 展望을 維持했을 것이다. 더우기 同期間 日本은 144億弗의 黑字를 누렸고, 韓國의 對日赤字가 가장 深刻했던 76~78년간 308億弗의 엄청난 黑字로 西方國家로부터 壓力을 받고 있었던 事實은 現 國際協力の 樣相이 形式的 平等이 아니라 相對國의 水準을 考慮한 國際의 호혜주의가 支配하고 있음과, 韓日間 貿易協定 前文을 且置하고,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協定 第2條에서 過去之事는 終結된 것으로 宣言됐지만 過去 韓日 關係를 再精査해 볼 必要性이 切實하며 韓日間 特殊性을 考察해온 片鱗으로 봐도 至今의 貿易赤字는 90年前과 비슷하며 最近 1世紀동안 日本이 世界 經濟大國으로 登場하는데 韓國의 寄與가 露呈되었다. 그런데 請求權協定 第2條의 實質의인 效力發生은 日本의 誠意있는 努

力으로, 日本의 실제의 모습으로 露呈된 것을 가림으로써 가능하므로 懸案問題 解決에 日本側의 眞心과 誠意있는 努力이 促求된다. 특히, 世界 均지의 水準에 있는 일본이 纖維類와 水産品의 對日 輸出에 높은 關稅를 賦課하고, 毛絲에 量割當, 絹織物에 自律規制, 참치 自律規制, 其他 水産物에 量割當, 事前確認, 窓口一元化 등의 障壁을 두는 것이 穩當치 못하며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優位에 있는 國家로서 關稅 非關稅 障壁은 철폐되어야겠다.

또한 韓國은 79年 鐵鋼類輸入이 12억6천만불, 機械類가 24억6천만불, 電子電氣機器가 13억3천만불, 合計 50억5천만불로서 韓國은 輸入代替가 時急히 要求된다.

그리고 日本도 韓國의 輸入代替에 積極 協力했어야 했는데 淸算보계획에 의한 技術協力이 51~79년까지 1천5백만불인데 鑛工業分野는 23.5%에 불과했고, 先進國이 包括的으로 施行하는 淸算보계획 外에, 兩者間 技術協力は 77년 1만불 뿐이었고 技術導入에 있어서도 78년까지 2억3천만불중 日本相對가 높은데 日本이 韓國을 競爭國으로 意識, 核心技術의 對韓 移轉을 拒否 내지 꺼리는 實情이다. 앞으로 새로운 態度轉換이 있어야 穩當하며, 上記部門에서 輸入代替가 이뤄졌다면 貿易收支는 79년 赤字가 4천만불로 축소될 수 있었고, 韓日 間에도 上記部門 對日 輸入先인 60.4% 30억5천만불의 赤字를 縮小시켜, 關稅 및 非關稅 撤廢로 纖維類와 水産品에서 2억5천만불의 對日 輸出增加만 이루어졌어도 健全한 貿易收支均衡이 이루어져서 將來 共同利益의 追求라는 새로운 經濟協력을 摸索할 수 있었다.

⑦ 將來 共同協力方向의 摸索

兩國이 利益競爭이나 相反된 利害關係로부터 相互 均衡을 維持하면서 앞으로 追求해야 할 經濟協力方向은 에너지 海洋 및 대륙봉 開發協력과 水平 國際分業이 追求되어야 한다. 73年 배럴당 2불하던 原油價가 80년 8월 현재 32불로써 세계 經濟는 油價高와 供給不安 兩面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資源도 暴騰하여 資源이 부족한 韓日兩國은 같은 病을 앓고 있다. 이런 狀況을 世界 經濟沈滯側面에서 보면 OPEC 窺포가 否定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需要彈性이 없는 世界 經濟構造와 確認埋藏量의 56%를 가진 자로서 肯定的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79년 原油 確認埋藏量은 6,555억 배럴, 80년 1/4分期 水準 6220만 배럴/日로 生産한다면

可採年數 28.5年이다. 石油業界에서는 아직 未發見 油田이 많아 原油 賦存量은 2兆 배럴로 推定하고 現 水準으로 88年 使用이 可能하다고 하나 經濟成長은 石油 消費를 增大시키므로 原油 回收率이 現在 25~35%에서 40~45%로 向上된다 해도 2千年代初까지는 代替에너지가 開發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에너지로 gas, 重質油, 瀝靑砂(Tar Sand) 油頁岩(Oil Shale)의 石油類와 石炭, 우라늄이 地下에 埋藏되어 있고 太陽에너지, 海洋에너지, 風力, 水力, 地熱, 水素 등의 自然에너지, 生物에너지 등이 있다. 그러므로 韓日兩國은 資源貧國의 現 고통을 “必要는 發明의 어머니”라는 素朴한 見解에서 출발해야겠다. 더우기 世界 經濟 回復 時期에 油價를 올렸던 經驗 OPEC國의 經濟開發에 따른 資本需要 膨창, 油價展望을 예측케 하는 OPEC國 決議案을 보면 83~84年쯤 대폭 引上이 우려된다. 그런데 經濟成長은 資源과 技術의 合成이며, 兩國은 人力을 背景으로 한 技術의 選擇으로 經濟的優位를 얻을수 있으며, 에너지 貧國으로서 에너지 技術開發選擇이 바람직하다. 先進國에서는 代替에너지 研究가 活潑히 進行되는데, 韓國은 莫大한 投資, 經濟性, 實用性의 不確實, 研究 對象인 에너지源의 分散을 理由로 否定的인 見解가 있지만 에너지需要를 代替할 技術을 개발하는 國家는 과 리協約을 통한 國際的인 工業所有權確保와 需要充足을 통해 最尖端의 先進國으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절박한 고통을 能動的인 投資로 대처해야 한다.

(1) 石炭의 境遇 Hard Coal 이 10,760억 톤으로 173年 쓸수 있고 Brown Coal이 3,400억 톤으로 178년 쓸수 있는 世界 埋藏量을 갖고 있어 풍부한 편이나 主에 에너지源이 1950年代 석탄에서 石油로 代替됨은 採掘, 輸送, 燃燒에 便利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石炭液化는 2次大戰中 獨逸에서 開發 最近 南阿聯邦에서 實施되고 있고 또 美國등에서 石炭으로부터 液體 및 氣體 燃料을 얻는 方法, 石炭을 油類와 混合 슬러리화 해서 石炭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輸送하는 技術이 實用段階에 있다고 한다. 兩國도 石炭을 低廉하게 液體化하고 燃燒에 있어서도 石油를 代替할 수 있는 物理化學의 研究에 着手해야 한다. 또한 油頁岩과 瀝靑砂는 北美에 많은데 아직 採掘費用의 經濟性으로 問題點이 있어 歐美 日本등 先進國 有名會社가 캐나다 앨버타州에 Pilot Site를 設置하고 있지만 캐나다政府는 先進國의 開發參與로 메이저化 됨을 꺼리어 中進國의 參與를 바라므로 韓國도 現技術水準消化와 參與가 要望된다. —계속—